

#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 출토 국자형 동기 시론

이지은\* · 막시멘코 V.Ye.\*\*

## 〈목 차〉

1. 머리말
2. 지리, 역사 개관
3. 국자형 동기 출토 유적과 공반유물
4. 형식분류
5. 용도와 기능
6. 맺음말

## 국문요약

남동유럽의 스텝지구, 즉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의 기원전 5-4세기로 편년되는 쿠르간에서 독특한 형태의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구형을 띠고, 기체 및 저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몇몇 학자들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을 풍로로 규정하였다. 이 유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행해진 적은 없고, 단순한 유적 소개 자료이나 보고 자료에 간략하게 언급된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유물은 柄部和 鑿部の 유무로 크게 두 유형식으로 나뉜다. 동체부 측면에 꺾쇠형태의 손잡이를 2개 가진 것을 제 1 유형식으로, 기벽 측면에 하나의 鑿部를 가진 것을 제 2 유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제 2 유형식은 다시 유물의 전반적 형태와 구멍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시 2형식으로 분류된다. 제 1형식에 속하는 유물은 동체부가 전반적으로 구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그 전면에 구멍이 나있는데, 매우 정선된 형태를 띤다. 이들은 주로 서쪽의 스키타이 분묘에서 출토

\* Южный Федераль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박사과정

\*\* Южный Федераль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교수

되었다. 반면 제 2형식에 속하는 유물은 저부와 동체부 하부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형태는 원형과 삼각형에 가깝다. 제 1형식 유물에 비해 입체감이 떨어지고, 무거우며, 조잡한 편이고, 대부분 동쪽의 사브로마트 문화 분묘에서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자형 동기는 총 9점이고, 그 중 우랄-볼가유역에서 3점, 돈강유역에서 2점, 코카서스 북부에서 1점, 드네프르유역에서 3점이 출토·수습되었다. 그 중 정확한 출토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5점이다. 본고에서 필자들은 이 유물이 다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첫째는 풍로와 향로의 역할이다. 헤르도토스는 스키타이는 장송의례 후 “스키타이의 사우나”라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였는데, 그 때 대마를 피웠다. 둘째, 이들 유물을 솥에서 고기를 건져내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유물이 동복과 손가락과 공반하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치즈 가공으로의 이용이다. 몇몇 국자형 동기는 쿠르간의 봉토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장송의례 및 공양 이후, 이들을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스텝, 국자형 동기, 스키타이, 사브로마트, 풍로, 국자, 장송의례, 공양, 쿠르간

---

## 1. 머리말

기원전 8-7세기가 되면서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에는 철제마구를 비롯한 철제품을 이용한 키메르츠가 활동하면서, 청동기시대가 마감하고 초기철기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초기철시대에는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기존의 유목 또는 정착민을 정복, 멸망시키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훈족시대 이전인 기원후 4세기 초까지 지속된다.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의 몇몇 분묘유적에서는 기본적으로 켈형의 기체를 가지고, 저부와 동체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청동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유물의 수량은 총 9점으로 아직 미미하다. 1964년 콘스탄틴 표도르비치 스미르노프 (Константин Федорович Смирнов)가 이들 유물을 의례용 청동풍로로 명명한 이후,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풍로 또는 기형에 주목하여 국자라고 부르고 있으나, 용도 및 용어 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 현재까지 이 유물을 조명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고, 단순한 유적소개물이나 보고자료의 출토품 목록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유물의 용도에 근거한 구체적 명칭을 주기보다, 차후의 발굴 성과 및 연구를 기대하면서, 기형에 바탕을 두고 이들을 국자형 동기라 명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에서 발견, 출토된 국자형 동기는 9점이다. 적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물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지 않고, 동·북으로는 우랄지역,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스텝지역, 남쪽으로는 코카서스 북안지역에까지 넓게 산재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의 초기철기시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자형 동기가 출토된 유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출토상황, 공반유물, 유적편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9점이라는 매우 적은 수량인 까닭에 형식분류의 정밀성이나 형식과 문화상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현 자료에서 보이는 속성을 바탕으로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출토 유구·유적의 편년, 귀속고고문화, 분포를 토대로 단순하게나마 이들 형식과 시대·문화상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형과 출토상태 등의 사항을 참고하여, 추정 가능한 국자형 동기의 용도 및 기능을 제시하도록 한다.

## 2. 지리·역사 개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는 남동 유럽 또는 동유럽 남부의 스텝지구라고도 부르며,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스텝지역과 우크라이나 스텝지구를 아우르는 영토로, 지리적으로는 우랄·볼가 유역, 돈강 유역, 쿠반강 유역, 북코카서스 지역, 드네프르 유역을 지칭한다.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로 편년되는 초기철기시대에 이 지역으로 여러 유목부족들이 이동하여 왔고, 재지 부족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과 융화하였다. 정착부족들은 농경, 수공업, 상업에 유리한 지역인 대형 하천 유역에 자리 잡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과의 무역 요충지와 무역도시를 설치한 아조프해와 흑해 연안이 좋은 위치로 부상되었다.

당시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의 인종적 구성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리스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8-7세기, 즉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이 지역은 키메리츠(киммерицы)가 삶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키메리츠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대적인 것이다. 기원전 6세기 전반은 서아시아로 원정을 떠났던 스키타이가 귀환한 시기로, 이때 스키타이족은 돈강 유역을 기점으로 서쪽지역을, 그 동쪽지역은 사브로마트가 점유하였다.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6-4세기 스텝지역을 스키타이 고고문화와 사브로마트 고고문화로 크게 둘로 나눈다. 스키타이 고고문화 지역은 돈강 유역에서 두나이강 유역이고, 사브로마트 고고문화 지역은 돈강 유역에서부터 동쪽으로 볼가강 동안과 우랄 서안일대를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종적, 지역적 문화를 고려한다면, 그 범위가 보다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스키타이(скифы), 사브로마트(савроматы), 사르마트(сарматы)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스키타이는 그리스어로 Σχυθα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7-3세기 흑해 북안에 자리하던 주민의 통칭이다. 이들은 인종상으로 북이란계, 언어상으로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 물질·정신문화상, 사브로마트, 사르마트, 그리고 마사게트(масагеты)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스키타이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 특히 헤르도토스의 『역사』와 고고자료가 기본적으로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부 학자들은 스키타이가 기원전 14세기부터 볼가강 유역에서 서쪽에 이르는 영토에서 살았던, 후기청동기시대 스루브문화(срубная культура)를 가진 부족을 계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일부는 스키타이가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주한 부족이 주축이 되어 재지인들과 혼혈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sup>

1) Смирнов К.Ф. 1969, 『Скифы』,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 С.954

초기 스키타이의 역사는 기원전 7세기 흑해북안에서 키메리츠족과 무력충돌을 하고, 그들을 서쪽으로 몰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원전 670년경 스키타이는 이동하는 키메리츠족을 쫓아 소아시아로 진출하였고, 그곳에서 미디아,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렀으며, 미디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인 기원전 6세기 초까지 서아시아 지역에서 위세를 떨쳤다. 이런 스키타이의 원정의 흔적은 북코카서스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키타이의 주요 활동무대는 크림반도를 포함하여, 두나이강과 돈강 사이 스텝지구이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 가운데 드네프르강과 돈강 사이 스텝에서 활동하던 트스키타이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으로 기록하였다. 스키타이를 생업 형태상 분류를 하면, 드네프르강 하류 동쪽 연안과 크림반도에서 활동하던 스키타이는 순수 유목민이었고, 인구르강과 드네프르강 사이 지역에는 유목 스키타이와 농경 스키타이가 혼재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스키타이는 흑해 북안에 위치한 도시와 활발한 교역을 하였는데, 주요 교역 대상물, 즉 수출품으로는 가죽, 밀, 가축, 노예를 들 수 있다. 왕권은 세습제에 의해 계승되었지만, 연합 회의 및 민중 모임에 의해 제한적이었다. 기원전 514-513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와의 전쟁은 스키타이의 정치 공동연합 결성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기원전 5세기 말-4세기 초 스키타이 왕 아테이는 그때까지 공존하여 왔던, 여러 명의 다른 스키타이의 왕을 축출하고, 1인 권력체제를 수립하였다. 기원전 340년경 아테이는 아조프해 연안에서 두나이강 유역에 이르는 영토에 통일 스키타이 왕국을 설립하였다.

드네프르강 하안의 니코폴리 근처에 위치한 기원전 5세기 석성은 스키타이 왕국의 행정, 교역, 경제 센터로의 전성기 모습을 보여준다. 드네프르강 유역에 조성된 왕묘라고 불리는 높이가 20m에 이르는 거대한 고분들은 스키타이 사회지배구조의 공고한 설정을 추정하게 한다. 이들 고분에는 묘주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순장자, 말과 같은 순생물을 공반한다. 무인묘에는 황금검초를 가진 단검, 다량의 동축, 시위, 창, 철촉과 같은 무기류가 부장되었다. 지배층 분묘에는 청동제, 금제, 은제용기, 채색토기, 포도주용 암포르, 각종 장신구 등이 출토된다. 스키타이 유적 출토 유물 가운데에는 정교한 그리스 금속장신구, 장식구들과 동물문양을 가진 스키타이의 골제, 금속제품이 유명하고, 스키타이 동물문양은 단순히 동물을 양식화하여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상호대립 상태를 표현한 것이 있다. 동물문양은 장식적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의례적 기능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sup>2)</sup> 앞의 책, 955쪽

기원전 339년 스키타이왕 아테이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1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기원전 331년 마케도니아의 프라키아 총독인 조피리온은 스키타이를 대규모로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스키타이에 의해 마케도니아군은 전멸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말에는 돈강 동쪽에서 이동해온 사르마트의 공격에 의해 스키타이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세력과 영토는 상당히 축소되었다<sup>3)</sup>.

사브로마트는 언어, 문화상 스키타이에 가까운 유목부족이다. 사브로마트라는 용어는 헤르도토스의 『역사』5장에 스키타이와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기술에서 스키타이의 동맹으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기원전 1세기 디오도르 시칠린스키가 원정에 참가하였던 이들이 타나이스 유역에 정착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브로마트는 키메리츠, 스키타이와 함께 소아시아로 원정을 떠났다가, 다시 코카서스산맥 북안지역과 돈강유역 스텝지구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4)</sup>

헤르도토스는 사브로마트가 타나이스강 유역에서 활동한다는 것만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브로마트가 스키타이 남자와 전투적인 아마존 여자와의 결합에서 탄생하였다는 전설적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것은 사브로마트 여인의 지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사브로마트의 모계인 아마존 여인(амазонки)은 적을 살해하지 않으면 시집을 갈 수 없다는 조항과 사브로마트 여인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전투에 참가하며, 남자와 같은 의복을 착용한다는 헤르도토스의 기술과 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프세브도 히포크라테스, 프세브도 스킨락, 예브독스, 에포르와 같은 고대 작가들은 사브로마트의 아내가 家長權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5)</sup>

기원전 4세기 사브로마트는 흑해북안 스텝지구에서 스키타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가강 유역과 우랄 서안의 스텝으로부터 도래한 시르마트와의 새로운 동맹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2세기 사브로마트는 사르마트와 가세하여 스키타이를 흑해북안 스텝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이 시점부터 사브로마트와 사르마트라는 명칭이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서 자주 혼동하여 기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6-5세기 사브로마트 고고문화는 스키타이의 문화와 상당히 유사하나, 무구류를 부장한 여인의 분묘가 사브로마트 고고문화가 스키타이 고고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특징

3) 앞의 책, 955쪽

4) 디오도르 시칠린스키

5) 헤르도토스, 『역사』, IV, 116

6) Максименко В.Е. 1983, 『Савроматы и сармат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остов н/Д.

이다. 기원전 후 사브로마트문화는 사르마트문화에 융화·흡수되었다.<sup>7)</sup>

사르마트는 남부 우랄 서안과 볼가강 유역에서 형성된 이란어계 부족들의 총칭이다. 사르마트에 관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헌에 많이 남아있다. 기원전 4세기 프세브도 스킨락은 시르마트라는 부족명을 언급하였고, 에브독스의 지리서에는 타나이스강 유역에 시르마트가 활동한다<sup>8)</sup>고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부터 프세브도 스킨, 데메트리, 헤라클리스 등의 저서를 선두로 하여, 문헌에 “사르마트”와 “사르마티아 (사르마트국, Сарматия)”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sup>9)</sup> 사르마트는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통하여 유라시아 스텝지구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 록솔란 (Роксоланы), 아오르스 (Аорсы), 알란 (Аланы) 등의 사르마트계 부족은 볼가강 유역, 남우랄 서부, 돈강 유역, 코카서스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사르마트의 경제적 기반은 유목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사르마트는 농경민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을 잠식하였고, 그곳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사르마트의 유라시아 스텝지구에 넓은 분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 경제 시스템의 특징에서 보았을 때 필연적인 것이다. 농경지와 농업도시에서 산출되는 물품은 유목민인 사르마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사르마트와 재지주민들과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였다. 초창기의 사르마트의 재지세력과 대규모 전투 활동은 동맹과 무역, 문화교류 차원으로 차츰 변화되었고, 돈강 유역과 쿠반강 유역에서 사르마트와 사브로마트, 그리고 미오프의 융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원전 4세기부터 문헌에서는 “사르마티아”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은 과거 스킨타이가 활동하던 곳이란 점과 함께 타나이스강을 경계로 서쪽은 유럽지구 사르마티아, 동쪽은 아시아지구 사르마티아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코카서스 북부, 돈강 유역, 흑해 북안 스텝지구 전체가 사르마트 수중에 들어왔고, 아시아 지구 사르마트(Азиатская Сарматия)는 중앙아시아의 諸國들과 호레즘 (Хорезм)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사르마트는 보스포르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에도 참여하여, 보스포르스국 사회, 문화, 풍습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1세기에는 미트리다트 6세와 연합하여 로마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기원후 49년, 사르마트의 한 갈래인 아오르스와 시라크는 보스포르스왕국의 왕위쟁탈전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르마트는 남쪽으로는 코카서스 남부까지,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원정을 자주 행하였다. 그럼으로써

7) 위의 책

8) Эвдокс, 『Землеописание』, I,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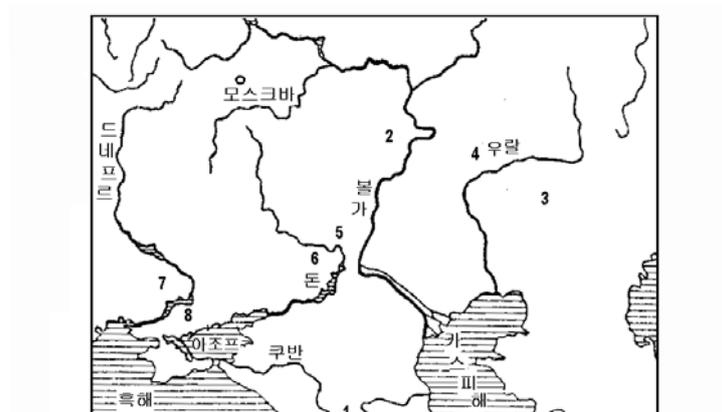
9) Максименко В.Е. 1998, 『Сарматы на Дону』, Ростов н/Д.

사르마트의 일부는 로마의 동쪽 국경에 정착하였다. 기원후 1-3세기 사르마트 중에서 알란이 강성하였다. 기원후 3세기에는 사르마트는 서쪽으로부터 이동, 침공한 고트로 인하여 약화되었고, 4세기에 사르마트-알란족은 동쪽에서 이동한 훈족의 침공으로 본거지에서 쫓겨났다. 일부 사르마트 세력은 에스파냐, 북부 아프리카, 프랑스, 영국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중세에 사르마트는 슬라브계, 북코카서스계, 투르크계 인종·부족과 융화되었고, 현재 오세티아인들을 사르마트-알란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 3. 국자형 동기 출토 유적과 공반유물

현재까지 알려진 국자형 동기 가운데 7점은 쿠르간에서 출토되었고, 2점은 우연히 수습되었다.



유적분포도

1. 베솔리야 로샤, 2. 알레쉬키노, 3. 포크로브카, 4. 소볼레브스키, 5. 카셰요브카, 6.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 7. 체르토울르역, 8. 가이마노바

<도 1>

1) 스타브로폴주 베솔리야 로샤 («Веселая Роща») 출토품 (도 2-2)

스타브로폴주(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는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북부의 스텝지구와 남부의 코카서스산맥이 시작되는 산악지구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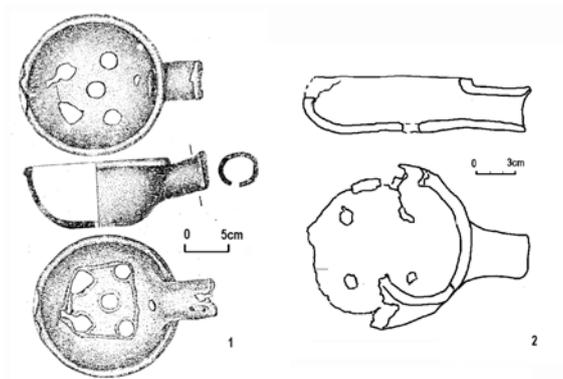
<sup>10)</sup> 위의 책.

져 있다. 1969년 M.A. 로마노브스카야(M.A. Романовская)를 단장으로 발굴된 베솔라야 로샤 고분군 제 13호 쿠르간, 제 7호 묘에서 국자형 동기가 출토된 바 있다. 쿠르간은 높이 0,8m, 직경 37m이고, 봉분은 심하게 파괴되고 교란되었다. 쿠르간 내에 각각 시기를 달리하는 10기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그 중 국자형 동기가 발굴된 7호묘는 제 6호 묘 발굴 도중에 발견된 도굴·교란된 유구로 그 형태와 형식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실제로 국자형 동기가 7호묘에 부장되었을 가능성보다, 도굴시 봉토 및 내부토가 교란되는 과정에서 휩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쿠르간 전체에서 보았을 때, 국자형 동기는 쿠르간 정상부에서 0.96m 아래 지점에서 중심유구에서 서쪽으로 2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따르면 이 유물 주위로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골제판 파편에 흩어져 있고, 그 위로 약 0,5m 되는 곳에 사람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국자형 동기의 저부는 평저에 가깝고, 병부는 저부와 수평하게 뻗어나가며, 구연부는 다소 내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구연부 직경은 13cm, 기고는 4,6cm이다. 병부길이는 4.7cm이고, 병부내부 직경은 2.1cm-2.5cm에 이른다. 기체와 저부의 두께는 0.6 - 0.7cm이고, 구연부에 해당하는 기체벽은 0.9cm로 다른 부분의 두께에 비해 약간 두껍다.<sup>11)</sup>

필자의 견해로는 유물은 기원전 5세기로 편년될 것으로 보인다.



1. 알레쉬키노 수습품(Гущина, Фирсов, 2000, рис.23)  
2. 베솔라야 로샤 출토품

<도 2>

<sup>11)</sup> Романовская M.A. 1969, 『Отчет』, p.109.

## 2) 알레쉬키노村 (с.Алешкино) 수습품 (도 2-1)

국자형 동기는 1980년 사라토프州 쿠네츠키郡 (Сара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Кузнецкий район) 알레쉬키노村 산림습지 개간작업 도중 발견·수습되어, 현재 사라토프 주립 향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2)</sup> 주조제품으로 천발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저부는 평저에 가까운 원저로, 그 직경은 7.3cm이고, 구연부 직경은 17.4cm, 기고는 7.8cm이다. 병부는 기체벽에서 비스듬하게 위를 향하고 있고, 병부 길이는 6cm, 병부최대직경은 3.7cm이다. 기체벽의 두께는 약 0.6cm이고, 저부의 두께는 0.9cm이다. 저부에는 원공이 뚫려져 있는데, 그 중 5개의 직경은 약 1.8-2.2cm으로 형태와 크기는 비교적 유사하다. 한편 나머지 1개의 구멍은 타원형을 띠고 있고, 0.8cm-1.1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 3) 포크로브카 (Покровка) 제 2 고분군 제 1쿠르간 제 2호묘 출토품 (도 3)

남부 우랄 북쪽의 오렌부르크州(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에 소재한 고분군들은 18세기 말부터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포크로브카 고분군들 가운데 총 4개의 고분군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포크로브카 제 1 고분군은 17기의 쿠르간, 제 2 고분군은 27기의 쿠르간, 제 7 고분군은 4기의 쿠르간, 제 8 고분군은 6기의 쿠르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고분군의 축조시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후기 중세까지로 매우 넓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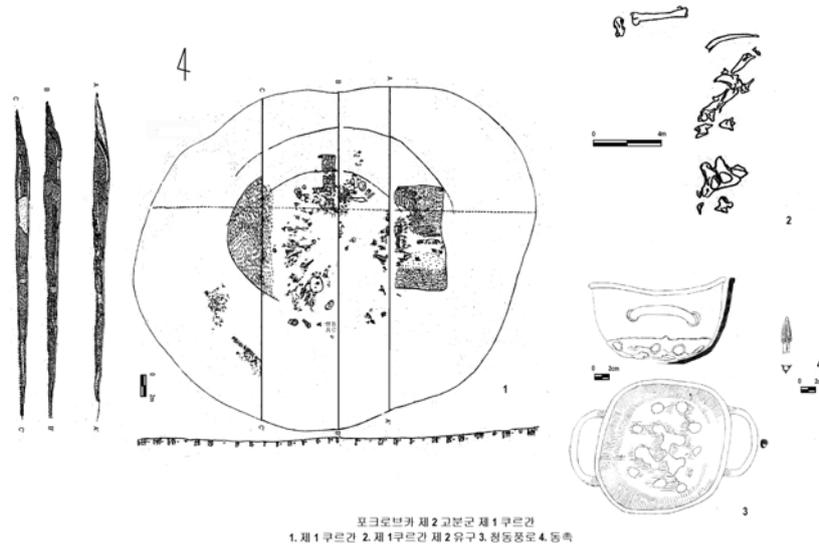
포크로브카 제 2 고분군은 이렉강변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 포크로브카村에서 동쪽으로 약 5km, 그리고 이렉강의 좌측 지류인 볼샤야 호브다강 하구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제 1 쿠르간의 높이는 2.5m이고, 봉분의 형태는 직경이 66m와 54m의 타원형이다.<sup>14)</sup> 쿠르간의 중심유구인 제 2호묘의 보존상태는 상당히 불량하다. 제 2호묘는 목재와 갈대를 이용하여 고대 지

<sup>12)</sup> 유물번호: 30410, 유물대장목록: B.1382.

Гущина И.И., Фирсов К.Б., 2000, 『Памятники савромато-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с территории большей саратовской губернии в собр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обзор коллекци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В. Сеницына (1900-1972)』, Саратов, С.27

<sup>13)</sup> Малашав В.Ю., Яблонский Л.Т. 2008, 『Степное население Южного Приуралья в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 С.5

<sup>14)</sup> Ведер Дж.,Егоров В., Дэвис-Кимболл Дж., Моргунова Н., Трунаева Т., Яблонский Л. 1993, 『Раскопки могильников Покровка 2 и Покровка 8 в 1992 году』, 『Курганы левобережного Илека』. вып.1, М. С.34



<도 3>

평선상에 설치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24m이다. 보고자는 목재유구가 생토 위에 축조되었고, 축조완료 후 목조물은 소각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에 탄 흔적이 유구 중심부에 잔존한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봉분축조 완료 후 다량의 말을 공양하는 의례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고자는 이 고분이 단순한 매장유구가 아니라 의례의 장으로 기능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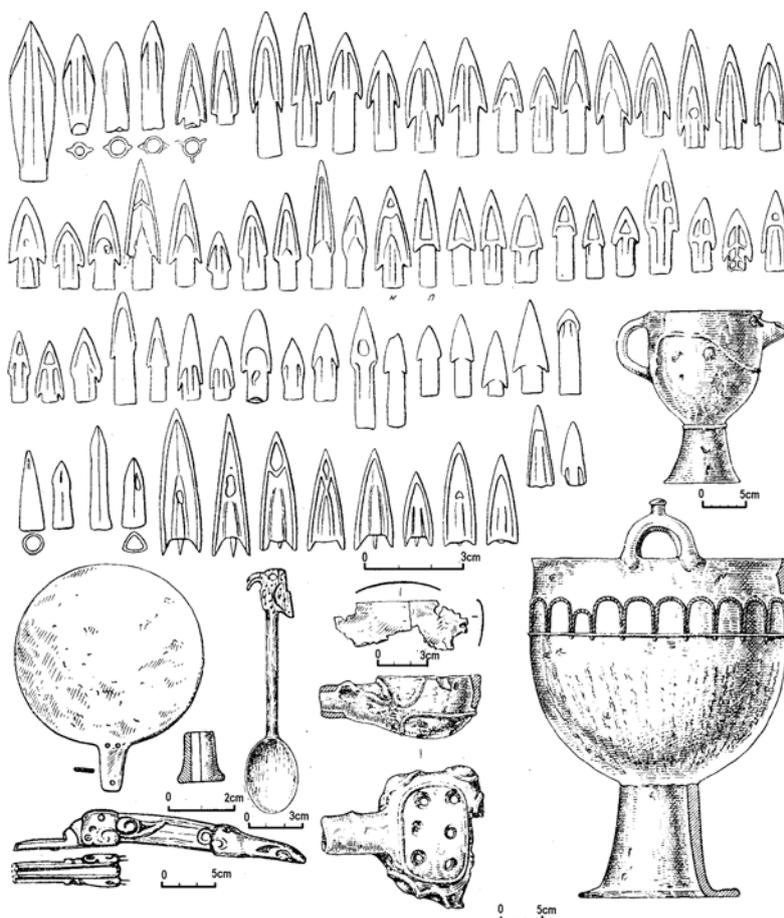
방금 언급했듯이 국자형 동기가 출토된 제 2 유구는 쿠르간 봉토 중심부 생토 위에 설치된 것으로 주변에는 사람 대퇴골과 마골이 산재하여 있다. 쿠르간 내 한 점의 대퇴골을 제외하고는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동축과 골촉이 출토되었다. 국자형 동기는 주조품으로 평저에 가까운 원저이고, 기벽 양쪽에는 꺾쇠형의 손잡이가 위치한다. 구연부에 가까워질수록 말각방형의 형태를 띤다. 저부에서 40mm 되는 지점에 뾰족한 흔적이 보이는데, 저부와 동체부를 따로 주조하여 붙이면서 생긴 흔적인지, 아니면 수리를 함으로써 생긴 흔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조 후, 저부에는 뾰족한 금속 도구로 10개의 원형, 타원형 구멍을 뚫었는데, 그 직경은 20mm에까지 이른다. 기벽의 두께는 중심부에는 10mm, 가장자리에는 14mm이다. 꺾쇠형 손잡이는 12-14mm의 직경을 가진다. 유구에서 관찰되는 소각 및 갈대 이용, 그리고 출토 동축으로 이 고분은 6세기 말 - 5세기 초로 편년된다.<sup>16)</sup>

<sup>15)</sup> 위의 책, 25쪽

<sup>16)</sup> 위의 책, 24-25쪽

4) 소볼레브스키 쿠르간 출토품 (도 4)

소볼레브스키 쿠르간은 남부 우랄 북쪽의 오렌부르크주 치플로브스키郡(Тепловский район) 부줄루크스키村(Бузулукский уезд)에 소재하고 있다.<sup>17)</sup> 1927년 발굴되었는데, 기원전 6세기 말 - 5세기로 편년되는 사브로마트의 사마로-우랄그룹에 특징적인 다양하고 동축이 다량 발견되었다. 그와 함께 동경, 골



소볼로브스키 쿠르간 출토품  
(Смирнов, 1964, рис.14)

<도 4>

<sup>17)</sup>Смирнов К.Ф., Петреченко В.Г. 1963. 『Савроматы Поволжья и Южного Приуралья』. М. С.14..

제 손가락, 동복 2점, 동제 잔, 국자형 동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중 손가락과 동경의 골제 손잡이는 동물문양으로 장식되었다.<sup>18)</sup>

국자형 동기는 완만한 원저를 가지고, 구연부와 저부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저부에는 3개씩 2열로 6개의 원공이 뚫려있고, 저부에 말각장방형으로 돌대가 돌아간다. 두연부와 기벽에도 돌대로 장식되어 있다. 공부는 측면에 수평하게 뻗어나간다. 총기고는 8.15cm, 구연부 지름은 1.28cm와 1.56cm이다.

원공의 지름은 약 6.9cm이다. 기벽 두께는 약 0.8-0.94cm이다.

#### 5) 카셰요브카촌 쿠르간 (хут. Кашеевка) 출토품 (도 5)

1977년 로스토프주(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타핀스키군(Тацинский район) 스코스크스카야촌(ст. Скольская)에서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카셰요브카촌 쿠르간 1호가 발굴되었다. 이 쿠르간은 브이스트라야강과 칼리트바강의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6기의 쿠르간 중의 하나이다. 봉분이 삭평되어 발굴조사 당시 쿠르간의 높이는 고대 지평선으로부터 0.75m로 낮은 편이고, 직경은 25m이다. 쿠르간은 몇 차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매장유구의 평면형태는 5.5×5m로 원형



<도 5>

<sup>18)</sup> Смирнов К.Ф. 1964, 『Савроматы: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сарматов』, М., С.45-46

에 가깝고, 북동부에 짧은 횡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유구는 갈색혼의 식물질로 덮였다. 그러나 그 흔적은 유구벽 근처에만 잔존하였다. 일부 목재는 유구벽에 수직으로 세워졌으나, 유구바닥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이 유구는 천막형태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분적으로 말, 소, 염소의 뼈와, 인골이 출토되었다. 몇몇 짐승뼈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벽 근처에는 골제 숟가락, 동추, 회, 송곳, 잔돌이 출토되었다. 유구에는 총 4인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고, 두향을 남쪽으로 한 신전장으로 처리되었다. 피장자 부근에서 활과 화살, 은제 용기, 구슬, 소도, 대구와 회, 탄이 발견되었다. 유구 내에 다량의 무구류와 장신구, 생활용구, 의례용구 등이 부장되었다.<sup>19)</sup>

무구류 편년을 토대로 이 쿠르간은 스키타이 시대로 편년할 수 있고, 특히 동축과 철축은 돈강유역과 쿠반강 유역에서 자주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유물과 유구는 기원전 5세기로 편년된다.

출토된 국자형 동기는 쿠르간 중심부에서 출토되었는데,<sup>20)</sup> 원저를 가지는 주조제품이다. 저부와 기체에 삼각형과 원형의 각 7개씩, 총 14개 뚫려있다. 공부는 측면에 위치하고, 나무자루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 끝 부분에는 소형원공이 있다. 구연부의 직경은 14cm이고, 높이는 5cm, 공부 길이는 6cm, 직경은 3cm이다. 기벽의 두께는 0.5-0.8cm이다. 구멍의 직경은 2.4cm가량이다.

#### 6)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이 쿠르간 (Нижний Донский Частный курган) 출토품 (도 6, 7)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이 고분군은 로스토프주 벨라야 칼리트바촌(Белая Калитва)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25개의 쿠르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 1호 쿠르간 중심부에서 일부 파손된 동복과 국자형 동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 위에 소토가 뿌려진 흔적이 관찰되었다. 조사된 쿠르간에는 동물뼈와 인골이 몇 군데에 무리지어 발견되었고, 일부 말과 양으로 추정되는 동물뼈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물로는 동축, 마구류, 동제 늑대머리형태 제품, 동물문양의 동판, 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일부 유물과 뼈는 불에 탄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장유구벽이나 목재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대 지표면 아래에는 토층이 교란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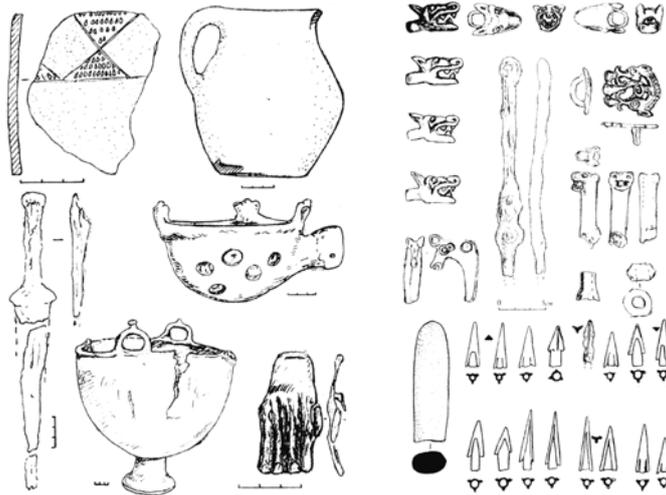
19) Максименко В.Е., Смирнов К.Ф., Косяненко В.М. 1984, 『Курган у хут. Кашеевка』, 『Сарматы и утверждения их политиче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Скифии』, М. С.148,149

20) Максименко В.Е., 1983, 『Савромат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остов н/Д. С.98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이 고분군  
제 1 쿠르간 청동봉로 출토 상태

<도 6>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이 고분군 제 1 쿠르간 출토품  
(Максименко, Ключников, Гуркин, 2001, рис.2,3)

<도 7>

동북 구연부 옆에서 출토된 발형의 국자형 동기는 원저에 측면 공부를 가지고 있다. 공부에는 나무자루와 결합을 공고하게 하는 소공이 뚫려져 있다. 구연부 상단으로 3개의 돌기가 솟아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구연부 직경은 15.5cm이고, 기고는 8.25cm이다. 공부의 길이는 5.25cm, 공부 직경은 4.5cm이다. 기벽과 저

21/ Максименко В.Е., Ключников В.В., Гуркин С.В. 2001,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гильника «Частьи Курган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в 2000 год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убликация», 『Археология Среднего Дона в скифскую эпоху』 М. С.220,222.

부에는 직경 2.25cm의 원공이 뚫려 있다.

출토 동축 및 동북으로 이 쿠르간은 기원전 5세기 - 4세기 초로 편년된다.

#### 7) 아드게이(Адъгей) 수습품 (도 8)

1917년 크라스나다르州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마이코프(Май коп) 남쪽에 위치한 아드게이(Адъгей) 지역에서 국자형 동기가 우연히 발견·수습되었다. 현재 크라스나다르 박물관에 소장·전시되고 있다<sup>22)</sup>. 구경은 13.8cm이고, 총 길이는 18cm이다<sup>23)</sup>. 기형은 전반적으로 반구형을 띠고, 저부는 원저이다. 기체와 저부는 몇 개의 단으로 구획되었고, 각 구획은 S자형 문양으로 채워져 있다. S자형 문양이 없는 부분은 모두 구멍으로 처리되어 있다. 공부는 기체 상부, 즉 구연부 근처에 위치하고, 공부 끝에는 소형원공이 있어, 목제 병부 고정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



<도 8>

#### 8) 체르토믈르익(Чертомльик) 쿠르간 출토품 (도 9)

체르토믈르익 쿠르간은 우크라이나 니코폴市(г.Никополь)에서 20km 떨어진, 드네프르강가에 위치한다. 1862년-1863년 유명한 I. Ye. 자벨린스키에 의해 발굴조사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에서는 《톨스타야 무덤 (Толстая Могила)》으로 불리어지다가, 후일 체르토믈르익 고분, 또는 체르토믈르익스키 쿠르간(Чер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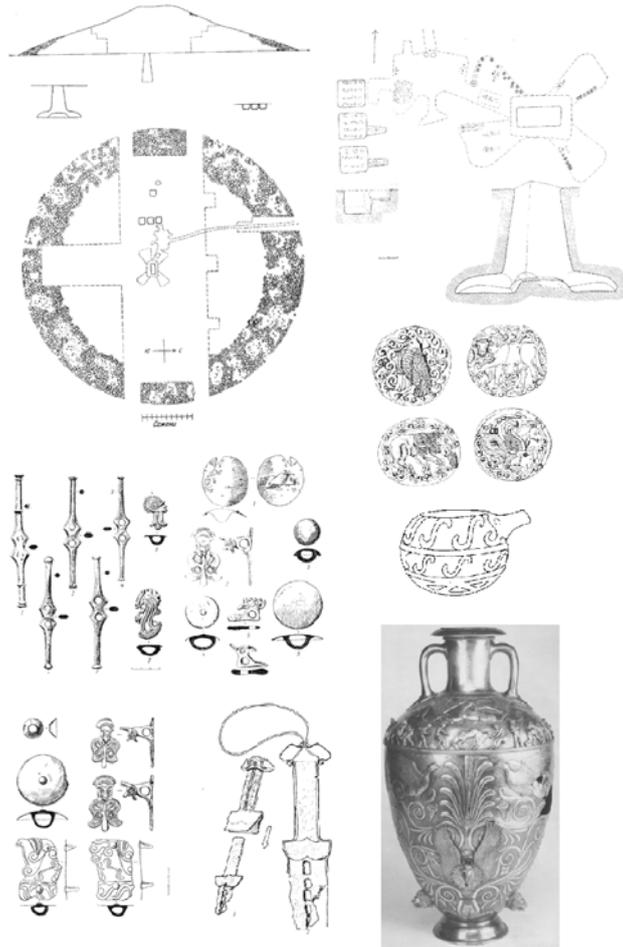
22) 유물번호. КП 302/9

23) 『Or des Scythes』, 1979, catalog №76

Musée Cernuschi, 2001 『L'or des Amazones』, Paris, catalog №25, p.90

ОМЛЪЩКИЙ курган)으로 알려졌다.<sup>24)</sup>

고분은 중앙 주실과 4개의 측실이 설치된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출토유물은 경식, 이식, 지환이나 의복장식품, 금·은제 장신구, 동축, 소도 등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부부합장실에서 발견된 《체르토몰르의 암포라》라고 불리는 표면에 상감장식된 은제 암포라가 매우 유명하다.<sup>25)</sup>



체르토몰르의 쿠르간과 출토유물

<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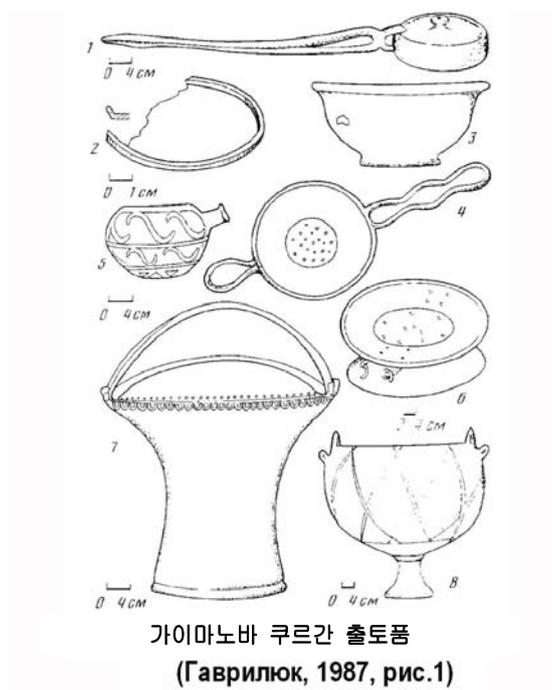
24) Брашинский И.Б. 1979. 『В поисках скифских сокровищ』. Л. С.61-62.

25) 앞의 책, 70쪽

국자형 동기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총 3단으로 나뉘어 지는데, 가장 하부의 1단은 저부를 동체부와 나누고 있고, 사격자문으로 장식되었다. 동체부는 다시 2단으로 나뉘며, 각 단은 S자형이 성글게 있다. 주조 품으로 높이는 11.5cm, 최대경은 15cm이며, 구연부 근처 측면에 부착된 공부의 길이는 4cm이고, 그 직경은 2.8cm이며, 말단에 소공이 뚫려있다. 기벽의 두께는 0.5-0.6cm이다.<sup>26)</sup>

#### 9) 가이마노바 (Гай манова) 쿠르간 출토품 (도 10)

가이마노바 쿠르간은 우크라이나 바실리에브郡(Васильевский район) 발카村(с.Балка)에서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1967년 관개수로 건설을 계기로 А.И. 테레노쥐킨(А.И. Тереножкин)의 지도 하에 발굴조사되기 시작하였다.<sup>27)</sup>



<도 10>

26) Алексеев А.Ю., Мурзин В.Ю., Ролле Р., 『Чертомлык: Скифский курган IV века до н.э.』, Киев, С.159, Каталог.№33

27) Тереножкин А.И., Ильинская В.А., Мозолевский Б.Н. 1977. 『Скифский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Гай маново поле (раскопки 1968г.)』, 『Скифы и сарматы』, Киев. С.152

국자형 동기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구연부는 내만한다. 총 3단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하부의 1단은 저부를 동체부와 나누고, 사격자문이 있다. 동체부는 2단으로 나뉘며, 각 단은 유연한 S자형이 성글게 배치되어 있다. 공부는 동체부 상단에 위치한다.

국자형 동기 내부에는 가죽조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가죽 주머니를 그 내부에 넣었음을 시사한다.<sup>28)</sup>

### 3. 형식분류

현재까지 필자들이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국자형 동기는 이렇게 9점이다. 현 우크라이나 영토에 위치한 고분으로 19세기 말 발굴된 코졸 쿠르간(курган Козьлі)의 부실에서 국자형 동기가 토기, 철제 손가락과 함께 출토되었고, 현재 모스크바 소재 국립역사박물관에 소장되었다는 정보가 있는데<sup>29)</sup>, 불행히도 필자들은 이 유물을 접하지 못하였다. 또한 로스토프주 노보체르카스 박물관에도 동일계통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 방금 언급한 2점의 실태불명의 유물을 제외한 지금까지 알려진 국자형 동기는 모두 청동 주조제품이고, 원저이며, 저부와 동체부에 구멍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비록 적은 수량이나마, 필자들에게 알려진 9점의 국자형 동기를 토대로 간략하게 형식을 분류해보았다.

먼저, 병부와 공부의 존재를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식으로 나누어진다. 동체부 측면에 꺾쇠 형태의 손잡이를 2개 가진 것을 제 1 유형식으로 하고, 동체부 측면에 하나의 鑿部를 가진 것을 제 2 유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제 1 유형식에 속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포크로브카 출토품이 유일한 예이다.

제 2 유형식은 다시 유물의 전반적 형태와 구멍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시 2형식으로 분류된다. 제 2 유형식의 제 1 형식에 속하는 유물은 동체최대경이 구연부에 있고, 저부의 곡선도는 제 1 형식에 속하는 유물에 비해 완만하여, 원저이기는 하나 비교적 평저에 가깝다. 또한 기고도 낮은 편이므로 전반적으로 제 2형식에 비해 편평하다는 느낌을 주며, 입체감이 떨어진다. 특징적인 구멍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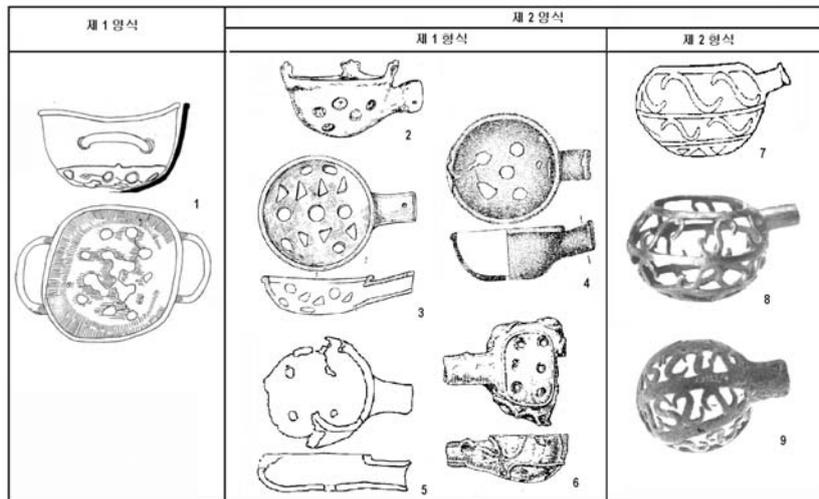
<sup>28)</sup> Гаврилюк Н.А. 1987, 『Пища стенных скифов』,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 С.29.

<sup>29)</sup> Алексеев А.Ю., Мурзин В.Ю., Ролле Р., 『Чертомлык: Скифский курган IV века до н.э.』, Киев, С.118,

부와 동체부 하부에 있고, 그 형태는 원형과 삼각형이다. 공부는 기체의 중·상부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래 기고가 낮은 탓에 거의 동체벽 전면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제 1 형식과 비교했을 때, 무거우며, 표현방식이 조잡한 편이다. 기고 측면에서 보면, 제 1 유형식에 속하는 포크로브카 쿠르간 출토 유물이 이와 유사하다.

제 2형식에 속하는 유물은 구연부가 내만하고, 동체최대경이 대략 중간에 위치하는 까닭에, 동체부가 전반적으로 원구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그리고 저부와 동체부가 수평선상으로 구획되고, 동체부가 다시 수평으로 이등분된다. 각 구획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직선 또는 곡선이 위치하는데, 저부에는 삼각선문 또는 사격자선문이, 동체부에는 S자형 문양이 배치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정선된 형태를 띤다. 공부는 동체부 상단에 위치한다.

제 2 유형식의 1형식에는 스타브로폴주 베솔라야 로샤 출토품, 알레쉬키노 촌 수습품, 포크로브카 출토품, 소볼레브스키 쿠르간 출토품, 카셰요브카촌 쿠르간 출토품,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 출토품이 속한다. 이들 고분군은 모두 아조프해 동안에 위치하므로, 지리적으로 비교적 동쪽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6세기 말 - 5세기로 편년되며 사브로마트 고고문화에 속하는 고분이다.



형식분류표  
 1.포크로브카 출토품, 2.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출토품, 3.카셰요브카 출토품, 4.알레쉬키노 수습품, 5.베솔라야 로샤 출토품,  
 6.소볼레브스키 출토품, 7.가이마노바 출토품, 8.체르도볼르역 출토품, 9.크리스나디르 박물관 소장품

<도 11>

한편, 제 2 유형식의 2형식에는 가이마노바 쿠르간 출토품, 체르토펠르의 쿠르간 출토품, 크라스나다르주 아드게이 지역 수습품이 해당된다. 아드게이 수습품을 제외하고 보면, 가이마노바 쿠르간과 체르토펠르의 쿠르간은 모두 현 우크라이나 영토, 즉 아조프해 서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유라시아 스텝지구 서단부에 자리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되는 스키타이 지배층 고분이다.

#### 4. 용도와 기능

첫 번째는 K.F. 스미르노프의 의견과 같이 의례용구의 가능성이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알타이에 소재한 파지릭 고분 매장실 한 모서리에 세워진 채 발견된 청동풍로이다. 그 내부에는 불에 탄 흔적을 가진 자갈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대마초를 피우는 도구로 추정되었다.<sup>30)</sup> 그리스 역사가 헤르도토스에 따르면, 스키타이는 장례를 치른 후, 작은 천막을 세우고, 그 중심에 자갈을 약간 깔고, 불로 데운 뒤, 대마씨를 던짐으로써 연기와 증기를 발생시키고 들이마시고 몸을 씻음으로서 정화시키는 풍속이 있었다.<sup>31)</sup> 비록 파지릭 고분에서처럼 불에 탄 자갈이 함께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먼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에서 출토된 이들 유물이 모두 쿠르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베솔라야 로샤, 포크로브카, 카셰요브카,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과 같이 주체 매장유구 상부, 또는 매장유구 중심에서 출토, 포크로브카와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에서 불에 탄 인골과 짐승뼈가 국자형 동기 근처에 위치했다는 점을 보면, 헤르도토스의 기록이나 파지릭 고분에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국자형 동기에 자갈과 석탄을 넣고, 매장의례 이후, 정화의식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동풍로에 난 구멍은 공기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연기를 빠른 시간 내에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실용적인 주방용구로서의 기능이다.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과 소블레브스키 쿠르간에서 국자형 동기는 동북을 공반하는데, 특히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에서는 구연부와 동체부가 다소 파손된 동북의 구연부에 국자형 동기가 함께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동물뼈 파편이 흩어

30) Руденко С.И. 1953,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С.54. рис.25.

31) 위의 책, 333쪽,

헤르도토스, 『역사』, IV, 73-75.

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북은 유목민들이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유목민들은 고기와 육수를 분리해서, 육수는 마치 음료처럼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동북에 고기를 삶고, 이 구멍이 있는 도구를 국물은 아래로 빠지고 고기만 건져 내도록 하는 국자와 같이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유물이 가이마노바 고분군에서 식기와 함께 출토되었고, 코졸 쿠르간에서는 식기인 숟가락과 토기가 그 근처에서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은 국자형 동기의 주방용구로써의 설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가능성은 발효유제품 제작 도구의 설이다. 유목민들은 육류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섭취하였다. 마유나 염소유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그대로 마시기도 하였지만, 겨울에는 저장성이 강한 발효시킨 유제품을 주로 섭취하였다. 유제품 제조에는 가죽부대가 이용되었는데, 가죽부대나 주머니에 우유를 넣고, 일정 기간 두면, 액체성분은 아래로 빠지고 고체성분만 가죽부대 안에 남게 된다.<sup>32)</sup> 가이마노바 쿠르간에서 발견된 청동제품 내부에는 가죽 주머니 흔적이 잔존해 있는데, 이것은 청동제품 안에 가죽주머니를 넣어서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청동제품에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므로, 가죽 주머니와 함께 이 청동제품이 우유를 액체성분과 고체성분을 분리시켜 발효유제품, 즉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청동제품의 한정된 적은 수량은 동일한 형태와 용도의 목제품도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만약 위에 제기한 첫 번째 설을 제외하고는, 목제품도 고기와 육수를 분리시키는 국자나 발효유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용기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보통 목제품은 잘 남아 전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더욱이 단백질과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조, 분리하는데 사용했다면, 그 부식속도는 빠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제시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설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실용적인 1차 용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국자형 동기의 출토지가 쿠르간이라는 점은, 이들 용도가 어느 정도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도 의례에 사용될 수 있고, 일단 의례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폐기시킨다는 점에 착안한다. 보통 의례에는 그 대상물에 대한 공양과 함께 참여자에 의한 주연이 수반된다. 특히 주연의 경우 의례에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발생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 때 유목민들은 고기를 삶고,

<sup>32)</sup> Гаврилюк Н.А. 1987, 『Пища стенных скифов』,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No.1. С.28,29

일부는 의례용으로 공양하고, 나머지는 참여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의례가 끝난 후, 음식 공양에 사용하였던 동복은 고의로 파손하고, 그와 함께 국자처럼 사용하였던 유물을 함께 의례의 장에서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국자형 동기의 출토상태와 시기

출토지	형식	출토위치	주변 배치물	시기
포크로브카 쿠르간	1양식	쿠르간 중심부	인골, 마골, 탄 흔적	BC 6-5C
베솔라야 로샤 쿠르간	2양식 1형식	쿠르간 중심유구 근처	골제판 파편, 사람 두개골	BC 5C
알레쉬키노촌	2양식 1형식	?	?	BC 5C
소볼레브스키 쿠르간	2양식 1형식		동복?	BC 5C
카셰요브카 쿠르간	2양식 1형식	유구 중심부	인골, 짐승뼈	BC 5C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티이 쿠르간	2양식 1형식	쿠르간 중심부	인골, 짐승뼈, 탄 흔적, 동복	BC 5-4C
가이마노바 쿠르간	2양식 2형식		가족주머니흔, 식기	BC 4C
체르토클리크 쿠르간	2양식 2형식	봉토	마구	BC 4C
아드게이 수습품	2양식 2형식	?	?	
코졸 쿠르간	?	?	철제순가락, 토기	BC 4C

##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초기철기 시대 유라시아 서부 스텝지구에서 매장유구에서 출토된 용도에 이견이 분분한 국자형 동기를 살펴보았다. 초기철기시대 상한이 기원전 7세기이고, 하한이 기원후 4세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 본고에서 살펴본 국자형 동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유구, 고고문화상으로는 스키타이, 사브로마트문화에 속하는 유구에서 출토되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현 시점에서 국자형 동기는 2 유형식으로 나눌 수 있었고, 제 2 유형식에서는 다시 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제 2 형식은 기원전 5세기경 동쪽의 사브로마트 고고문화 분묘에서 출토되었고, 제 2 유형식의 제 2 형식은 기원전 4세기, 서쪽의 스키타이 지배층 분묘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형식

의 차이를 시기차로 보느냐, 아니면 지역차, 또는 문화차로 해석하느냐를 규명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비교대상 간에 형식별로 시기와 지역, 소속 고고문화에 차이가 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본고에서 필자들은 이 유물의 용도를 한 가지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차후의 발굴 및 연구를 기대하면서, 현 상황에서 유추 가능한 여러 용도를 제시하여 보았다. 장송의례 후 연기로써, 정화의식을 하는 의례용 도구의 가능성, 고기를 삶은 후, 고기와 육수를 분리해내는 국자의 가능성, 공양의식에 사용한 의례도구의 가능성, 그리고, 발효유제품을 만드는 도구로의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사브로마트 문화에 해당하는 유구 출토품 6점 중 4점의 국자형 동기 주변에는 인골 및 동물 뼈가 산재하였고, 그 중 포크로브카 쿠르간과 니즈네 돈스코이 차스트이 쿠르간에 발견된 불의 흔적은 공양 및 제사에 사용된 제물, 즉 육고기의 조리과 같이 행위 또는 불을 통한 정화의식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국자형 동기는 초기철기시대 유라시아 스텝지구 서부에서 실용구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의례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Алексеев А.Ю., Мурзин В.Ю., Ролле Р., 『Чертомльк: Скифский курган IV века до н.э.』, Киев,
- Брашинский И.Б. 1979. 『В поисках скифских сокровищ』. Л.
- Ведер Дж.,Егоров В., Дэвис-Кимболл Дж., Моргунова Н., Трунаева Т., Яблонский Л. 1993, 『Раскопки могильников Покровка 2 и Покровка 8 в 1992 году』, 『Курганы левобережного Илека』, вып.1, М. С.34
- Гаврилюк Н.А. 1987, 『Пища стенных скифов』,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
- Геродот, 『История』
- Гущина И.И., Фирсов К.Б., 2000, 『Памятники савромато-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с территории большей саратовской губернии в собран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обзор коллекци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В. Сеницына (1900-1972)』,

- Саратов,
- Малашав В.Ю., Яблонский Л.Т. 2008, 『Степное население Южного Приуралья в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
- Максименко В.Е. 1983, 『Савроматы и сармат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остов н/Д.
- Максименко В.Е. 1998, 『Сарматы на Дону』, Ростов н/Д.
- Максименко В.Е., Ключников В.В., Гуркин С.В. 2001,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гильника «Частые Курган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в 2000 год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убликация』, 『Археология Среднего Дона в скифскую эпоху』 М.
- Максименко В.Е., Смирнов К.Ф., Косяненко В.М. 1984, 『Курган у хут. Кащеевка』, 『Сарматы и утверждение их политиче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Скифии』, М.
- Романовская М.А. 1969, 『Отчет』,
- Руденко С.И. 1953,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 Смирнов К.Ф. 1964, 『Савроматы: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сарматов』, М.
- Смирнов К.Ф. 1969, 『Скифы』,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
- Смирнов К.Ф., Петrenchенко В.Г. 1963. 『Савроматы Поволжья и Южного Приуралья』. М.
- Тереножкин А.И., Ильинская В.А., Мозолевский Б.Н. 1977. 『Скифский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Гайманово поле (раскопки 1968г.)』, 『Скифы и сарматы』, Киев.
- Эвдокс, 『Землеописание』
- Musée Cernuschi, 2001 『L'or des Amazones』, Paris
- 『Or des Scythes』, 1979

Abstract

## Bronze scoop from barrows of early iron age in the western part of Eurasian steppes

Lee, Ji Eun · Maksimenko V.Ye.

In the steppe zone of southern eastern Europe, the western part of Eurasian steppes, from the barrows BC fifth - fourth centuries of early iron age were found some unordinary bronze scoops. Many of them have a hemispherical shape. There are holes in the bottom and wall. Some scholars think, that these kinds of things can be the brazier. But they didn't suggest the adaptable reason. There's no study on these things in detail. Just at the preliminary reports of excavations and publications were written very shortly about them.

Scoop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handles and plug. The first group includes the scoop with two handles in the upper sector. The plug in the side of scoops is characterized by the second group. By the way the second group can divide into two types. In the first type form is flatter than the second group's. Holes are located in the bottom and the lower part of scoops. Moreover the form of them likes a circle, triangle or oval. In compare with the scoops of second type, they were made roughly. Usually they were discovered in the barrows, which belong to the archaeological culture Savromate. Openwork scoops come under the second type of the second group. General form of them is such as sphere. This kind of things were found from the rich barrows of Scythian rulers in the most western part of Eurasian steppes.

As far as know, there 9 scoops in the western part of Eurasian steppes, including three from the area of Ural - Volga, two from the area of Don, one from the north part of Caucasus and three from the area of Dnieper.

It's possible to know the five conditions, where and with what these artifacts were found. In this work authors give their view on multifunctional uses of objects. The first purpose - brazier and censer. Herodotus made a note about Scythian bath. After funeral ceremony, Scythian made themselves clean through the fumigation of the hemp in the Scythian bath. The second purpose - these artifacts could be using like a scoop for taking out the meat from the kettle. In some situations our objects were found with the kettle or spoon. The third function - people used them to make a cheese. Because of some of them were in the mound, so maybe people put them after funeral ritual and sacrifice.

Key words : early iron age, Eurasian steppe, scoop, Scythia, Savromate, brazier, funeral ritual, sacrifice, barrow

## Бронзовые ковши, найденные в курганах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Максименко В.Е., Ли Джи Ын

В степной зоне юго-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т.е.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в курганах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V – IV вв. до н.э. найдено несколько необычных массивных бронзовых ковшей.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имеет полусферическую форму. Ковши имеют отверстия на дне и стенках. Некоторые ученые считают их жаровнями. Подробное изучение этих предметов не проводилось. О находках подобных предметов сообщалось лишь в отчетах и отдельных публикациях.

По наличию ручек и втулки выделяется два типа ковшей. Ковши первого типа имеют две ручки на верхней части стенки. Ковши второго типа имеют боковую втулку. Ковши второго типа делятся на два варианта по форме отверстий. В первом варианте второго типа ковши имеют более плоскую форму, нежели ковши первого варианта. Отверстия находятся на дне или на нижней части. Форма отверстий круглая, треугольная или овальная. Ковши этого варианта сделаны более грубо, чем ковши второго варианта. Их находят обычно в могильниках савромат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торой вариант второго типа – ажурные жаровни. Общая форма близка шару, т.е. верхняя часть, устье округлены внутрь. Их находят в богатых курганах скифской элиты в самой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По стилю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едмет первого типа похож на предметы первого варианта второго типа.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ам известно лишь 9 бронзовых ковшей в том числе три найдены в Приуралье – Поволжье, два в Подонье, один в Предкавказье и три в Приднепровье. Из них *in situ* обнаружено 5 шт.

ук.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авторы высказывают мнение 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данных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е назначение - жаровня и курильница. Геродот отмечал, что после погребального обряда скифы очищали себя устраивая "скифскую баню", и используя для воскурения коноплю. Второе назначение - эти предметы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ковша для вычерпывания мяса из котл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они найдены рядом с котлом или ложкой. Третья функция бронзовых ковшей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ыра. Некоторые ковши были найдены в насыпи курганов. Возможно их клали после совершения погребального обряда и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я.